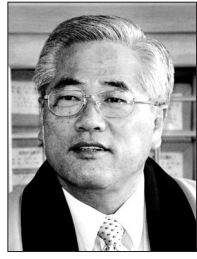


한일불교교류협 이사장에 회정 정사

제36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정기총회서 선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가 선출됐다.



남정 스님 후임으로 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이 선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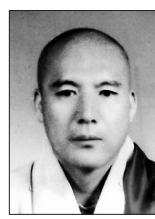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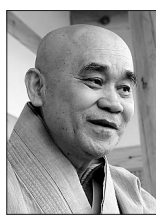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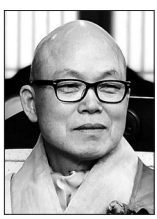
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2016년 사업계획으로 제37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6월 17일 일본 진언종 총본산인 가와사키 평간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대회 주제는 '불교신앙의 다양성'으로 세계 평화기원법회 및 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한국전통문화체험'을 주제로 제11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10월 중 충남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는 2월 23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36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 선임과 2015년 결산 및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이사장직 임기 만료에 따라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정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회정 정사는 취임사를 통해 "뛰어나니는 이사장으로서 회원 스님들의 활동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이사장에 총화종 종정

총림 본사 주지 후보 추천·임명 이어져

동화사 효광 스님, 범어사 경선 스님, 쌍계사 원정 스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로 효광 스님이 임명됐으며,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후보로 경선 스님이,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후보로 원정 스님이 추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24일 동화사 주지에 효광 스님을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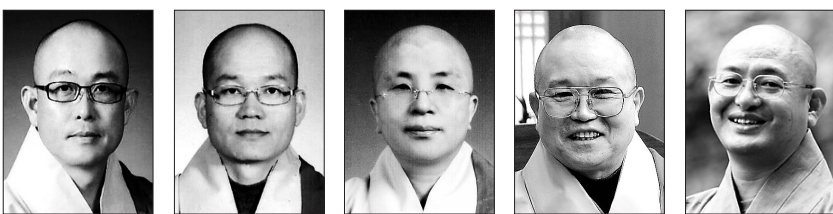


효광 스님, 경선 스님, 원정 스님

효광 스님은 은사로 출가해 1976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1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백양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전국 선원에서 52만거를 성만했다. 봉암사 주지, 동화사 금당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종정예정실장 소임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범어사는 2월 23일 임회에서 방장 지유 스님이 주지 후보로 경선 스님을 추천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경선 스님을 주지후보로 결정했다. 또한 쌍계사도 2월 23일 방장 고산 스님이 주지 후보로 원정 스님을 추천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제16대 중앙종회 보궐선거 마무리



제16대 중앙종회 보궐선거가 마무리됐다. 조계종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자승)는 2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교육분야에 성호 스님, 강원 분야 일화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또 비구니 재선거와 관련해 단독후보

로 출마한 혜수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중훈)는 2월 22일 제312차 회의를 열어 당선을 확정했다. 이어 쌍계사 교구선관위는 2월 25일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성조·이암 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불교 살려면 비구중심 프레임서 벗어나야”

2월 25일 '1983비상중단 재조명' 세미나서 한목소리

줄어드는 출가자와 불교신자 등 한국 불교의 미래에 대한 위기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구승 중심의 정화불사 이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1983년 비상중단이 추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상중단총책연구회(대표 이희선)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983년 비상중단 기억과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조계종 원로의원 안도 스님은 “불교 안으로만 보면 미래가 없다”며 “광복 이후 제헌국회만 보아도 기독교 국회의원이 20여명에 불과하고 불자 국회의원이 120여명에 달했다. 비구·대체간 정화불사 후 불교계가 많은 인재를 잃었고, 또 재가자들의 능력이 발휘되기도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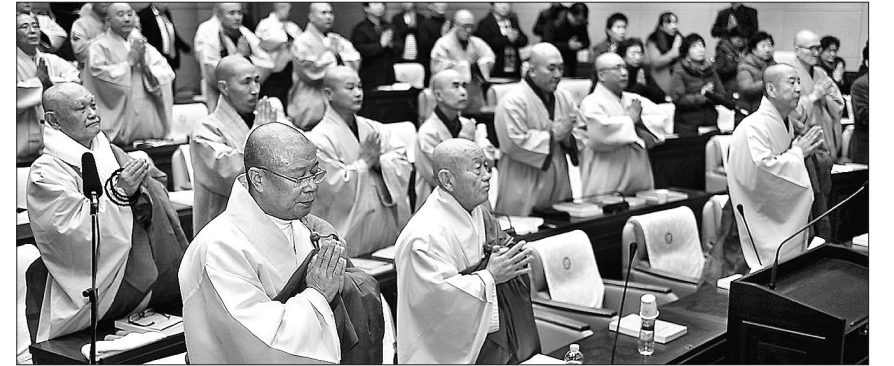
안도 스님은 이어 “1983년 비상중단은 젊은 스님들과 재가자들이 범난 이후 쇠퇴해가는 불교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정화불사 후 중단 운영 검토
1983년 전법사·교무규제 조망
“전법·운영·구조 새 판 짜야”

위해 나선 것”이라며 “당시의 다양한 혁신안을 다시금 살피, 조계종이 살고, 한국과 세계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상중단총책연구회 고문 성문 스님(종회의장)은 “비상중단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출세가 청년 불교도들이 한국불교 위기극복에 나선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의 ‘비상중단의 의미와 한계’, 박부영 불교신문 영남본부장의 ‘1983비상중단 개혁과 1994개혁 비교’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정승석 불교학술원은 “비상중단은 민주화운동기의 선구적인 결집체였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특히 비상중



비상중단총책연구회(대표 이희선)는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1983년 비상중단 기억과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단의 전법사 제도에 대해 주목했다.

정 원장은 “비상중단 관계자들이 예측한 것처럼 현재 출가자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출가자와 재가자의 중간단계 직책에 기존 승려들이 담당할 포교, 교화, 사찰총무행정 역할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중단의 전법사 제도 등은 대안을 승가 내부보다 출가와 재가의 연합에서 찾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범음 스님은 “비상중단과 94년 개혁의 배경은 인사문제가 주된

인이었다. 당시에도 중단운영이 참회와 감사기능에 충실했다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중단운영에서 인사 및 형벌권 행사의 독주를 막는 제도개선이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소장은 “비상중단의 좌초가 급진적인 개혁에 의한 것도 있지만, 비구중심의 정화불사이념이 작용한 것이 컸다”며 “정화불사의 틀 외에도 새로운 불교 비전이나 필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주요 발제 요약 27면> 노덕현 기자

“화쟁” 알린 성과 vs “분명한 입장 밝혔어야”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상균 위원장 체류 24일-화쟁위 활동' 토론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한 24일 동안 중재에 나선 화쟁위원회 활동을 평가,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2월 23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 체류 24일, 화쟁위 활동 이렇게 봤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협동 사무처장, 이광호 레디앙 대표,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 김한수 조선일보 기자, 방준호 한겨레신문 기자가 나섰다.

평화적 해결·화쟁사상 확산 '성과'

토론자들은 화쟁위가 12.5년중궐기대회의 평화적 성사에 크게 일조했다. 평화를 위한 목소리를 냈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이 요청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12.5월기대회에서 '평화의 꽃길 기도회'를 주최한 바 있다.

김한수 기사는 “12.5집회가 비폭력·평화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던 것은 종교인들이 앞장선 것이 컸다”면서 “또한 조계종단의 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을

에도 불구하고, 화쟁위와 조계사가 명확한 역할분담으로 문제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화쟁위 활동이 사회적으로 ‘화쟁(和靜)’의 가치와 의미를 제고시켰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방준영 기사는 “한 위원장 사태를 통해 화쟁사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지반이 넓어지고, 화쟁위의 힘이 세졌다.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화쟁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제대로 고민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안진걸 사무처장은 “타협과 화합 등의 가치가 무뎠던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서 ‘화쟁’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방해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집단이 있다면 누군가는 나서 꾸짖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화쟁위가 시민사회 화해와 함께 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애매모호한 입장표명 오해 부추겨”

반면, 한 위원장 중재에 나선 화쟁위가 불분명한 입장표명, 태도 등으로 명확한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다 비판도 제기됐다. 유지원 운영위원장은 “화쟁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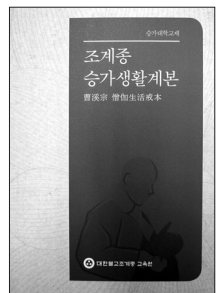
‘중립’을 강조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 모두 드는 것이 화쟁’이라 오해하고 있다”며 “화쟁위로서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화쟁의 개념과 가치를 폭넓게 홍보·공유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한수 기사는 화쟁위 향후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화쟁위가 한 위원장 사태 직후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똑같이 중재에 나선 것’이라 밝혔는데 거 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갈등해결에 앞서 중재 기준과 전문적인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화쟁위는 노동법 개정안과 관련한 향후 중재 방안을 내놓았다. 화쟁위는 한 위원장 피신 당시 노동법관련 노사정 간 원탁회의를 구성코자 노력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위원장 도법 스님은 “노동 개혁”이나 ‘계약’이라는 중요치 않다. 미래세대에 희망적인 노동의 길을 열기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1차적으로 종교계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박이름 기자

조계종 교육원 <승가생활계본> 발간



기본교육기관에서 수학교육과 있는 학인 스님들에게 현대적 계목을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재가 발간됐다.

조계종 교육원 산하 불학연구소는 2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승가대학 교재 <조계종 승가생활 계본·사진>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의 승가로서 계목을 정착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교재는 총 5가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먼저, 근본율장의 핵심적 계목과 <법명경>, ‘삼취정제’ 등 대승계의 여러 실천 덕목을 제시했다. 또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종헌·종법의 중요한 조문, <조계종 선원정규(2011)> <조계종 승가정규(2015)>까지 총망라했다.

이와 함께 평소 학인 스님들이 수지독송을 할 수 있게 글씨 크기를 크게 편집·제작하기도 했다. 승가대학 교재 <조계종 승가생활 계본>은 사찰승가대학 필수과목인 <계율 I·II>의 보조 자료로 활용되며, 기본교육기관의 생활 및 포살용 정규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재) 대한불교일봉선교종

일봉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 제2기 범음 범패 학인 모집

세계전법과 중생제도에 이바지 하는 일봉삼장대학(一鵬三藏大學)이 진리와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을 구현하고 이타의 보살행으로 세계인류평화와 불교중흥에 기여할 유능한 불교지도자를 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2기 범음범패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목

- ① 초급 : 예경의식 (도량석부터 ~)
 - ② 중급 : 상용의식 (불공 및 제반의식)
 - ③ 고급 : 전통의식 (시연 ~ 49재 회향까지)
- 특별의식 (점안식 외 기타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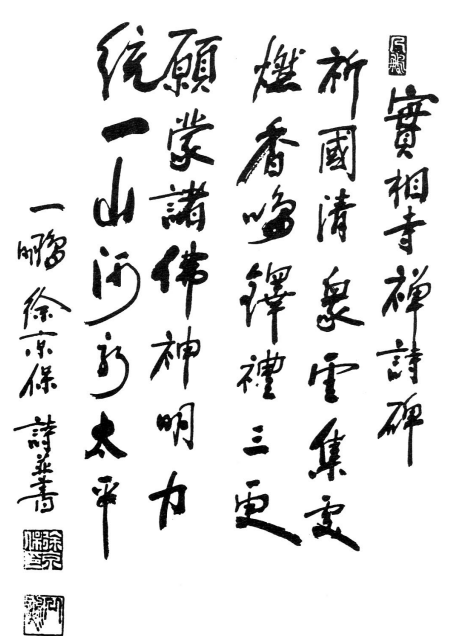
작법 : 바라무, 나비무

※ 특강 : 전통극락무, 법고(무), 연주 모듬북 등..

■ 교육과정 (1년 수료, 2년 졸업)

- 개 강 : 2016년 양력 3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 소 : 일봉선원
- 교육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 교육대상 : 승려, 법사, 재가불자 등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증명사진 1매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4일까지
- 수 강 료 : 입학금 및 교재비 포함 15만원
- 수강료 1년 60만원 (1학기 30만원)

※ 특 해 : 졸업 후 재가불자 법사, 포교사 자격부여(본종단)



■ 문 의 : 02)991-8175 교무처 / 010-5352-4692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신영동 93-1) 일봉선원 교무처